

대학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최경호 · 박정미(전주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통계 분석 |
| 2. 교양국어 관련 선행 연구 고찰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설계 | |

1. 서론

우리나라 교육법 108조에 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학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기초해 보면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교양 교육을 중시하며, 이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교육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교육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데, 그 전문가는 교양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게 된다. 이렇듯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인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나라별,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대학의 교양교

육의 목적을 유형화한 이성희¹⁾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둘째, 교양교육과 아울러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과정을 밟게 하는 경우, 셋째,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양교육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은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고학력화로 구인과 구직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이 시작된 2010년도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즉 교양교육이 보편적 진리탐구와 실용적 가치추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처한 여건과 현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학의 교양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직업 교육화 되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와, 교양교육이 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상아탑 쌓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²⁾. 이런 가운데 김현정³⁾ 등은 교양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조한 실용성 글쓰기는 교육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그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교양교육의 본질을 살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대학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실용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방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정부분 교양교육이 실용 교육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양국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계열별 글쓰기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등이 교양국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교양국어의 이와 같은 교육내용이 과연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교양국어의 실용화 교육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
- 1) 이성희, 「대학 교양국어 교육내용의 유형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면. 이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전문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2) 이수정 · 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3호, 2012, 13면.
 - 3)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10, 80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양국어에 대한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는 김두한⁴⁾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정도의 분석만을 수행했을 뿐, 보다 깊이 있는 통계분석을 통한 정보도출은 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양국어의 실용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보다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소재 사립 J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교양국어 관련 선행연구 고찰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인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능률적으로 길러주는 과목 중의 하나가 대학 교양국어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적 기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다. 이에 각 대학의 교양국어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언어적 기술의 4요소를 중심으로 교양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성희⁵⁾를 토대로 고찰해 보면, 읽기와 쓰기의 비율이 46%, 듣기와 말하기 비율이 28% 그리고 공통이 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전공교육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을 실용으로 분류했을 때, 17%의 실용에 비하여 비실용이 83%로 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소재 4년제 대학 교양국어는 실용적 가치추구보다는 보편적 진리탐구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양국어가 교양필수로 분류된

4) 김두한, 「대학의 교양국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실태」, 『지역사회개발연구』, 창간호, 1992, 47면~60면.

5) 이성희, 「대학 교양국어 교육내용의 유형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5면. 실용과 비실용의 구분은 과목명 및 강의계획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강의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우는 55%로 교양선택 45% 보다 조금 높았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교양필수 과목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비율은 <표 2.1> 처럼 나타났다.

<표 2.1> 교양필수 과목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비율

영역	대학 수(%)	과목 수(%)
쓰기	6(43%)	6(35%)
읽기, 말하기, 듣기	2(14%)	2(12%)
말하기, 듣기	2(7%)	2(6%)
읽기, 쓰기	2(14%)	2(12%)
읽기	1(7%)	1(6%)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29%)	5(29%)
합계	14	17

대학 교양국어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 교재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둘째,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셋째, 대학 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이다. 넷째, 대학 교양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지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수정과 이수정⁶⁾은 대학생들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8가지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이다. 이들이 정의한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역량의 하나로, ‘상대방의 의견 및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에서의 교양국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⁷⁾와 현대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⁸⁾, 대학교양국어의 수업모형개발⁹⁾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¹⁰⁾ 등이 있으나, 모두

6) 이수정 · 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3호, 2012, 27면. 8가지 기초역량은,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책임감, 의사소통, 관계구축, 다문화 감수성 등이다.

7)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1, 229-261면.

8) 엄성원, 「교양으로서 현대시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1, 263-288면.

9) 최혜진 · 강연임 · 신지연, 「대학교양국어의 개선방안과 수업모형 개발」, 『한국언어문학』, 제80집, 2012, 387-419.

교수자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 수요자를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지방소재 사립대학에 부응하는 교양국어 교육내용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전라북도 소재 J대학교에서 교양국어를 수강했거나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열의 크기에 비례한 표본크기를 정한 후, 비확률 추출법에 의한 편의임의표본(convenience sample)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시작 전에 응답요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으나, 전체 300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있어 이들을 제외한 총 284명(회수율 94.7%)의 응답자료를 SPSS 20.0 및 엑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측정도구

측정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설문에는 J대학교 교양국어의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표 3.1>), 교양국어의 필요성, 적정학점, 적정시간, 적정 분반크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개선되어야 할 교육내용, 교재만족도, 교과만족도 그리고 인구통계적인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응답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표 3.1〉 J대학교 교양국어 개요

현재 J대학교의 교양국어(R&W) 운영에 대한 기본정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 : 교양필수• 학점 및 시간 : 3학점(주당 3시간)• 영역 :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 중 택 1
--

10) 엄철, 「대학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논총』, 제4집, 2011, 49-66면.

4. 통계분석

4.1. 기술통계분석

먼저 교양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물어 본 결과, $3.49 \pm 0.977(M \pm SD)$ 을 보인 가운데 구체적인 빈도는 매우 필요치 않다 3.5%, 필요치 않다 10.9%, 보통이다 29.2%, 필요하다 40.5%, 매우 필요하다 12.3%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J대학교 학생들은 교양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양국어의 역할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쓰기, 읽기, 말하기의 언어적 능력 배양 43.3%,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소양 30.3%, 전공학습에 필요한 기초학습 능력 7.7%,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능력 15.7% 등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 간에 배타적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 진리 탐구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소양 보다는 도구과목으로서의 언어적 능력이나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능력 등 실용적 가치추구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국어 운영에 있어 학점 수와 강의시간 수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J대학 학생들의 의견은 <표 4.1>과 같다. 현행 3학점 3시간보다는 2학점 2시간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양국어 운영의 변화가 매우 필요함을 읽을 수 있는 결과이다. 여러 가지 여건 상 학점 수에 대한 조정은 어렵다면, 적어도 시간 수에 대한 조정을 통한 운영방법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4.1> 적절한 학점 수, 강의시간 수 및 적정 강의규모

학점 수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17.9%	43.4%	36.5%	2.2%
시간 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4.5%	49.6%	23.0%	2.9%
강의규모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40명 미만	40명 이상
	33.9%	55.5%	9.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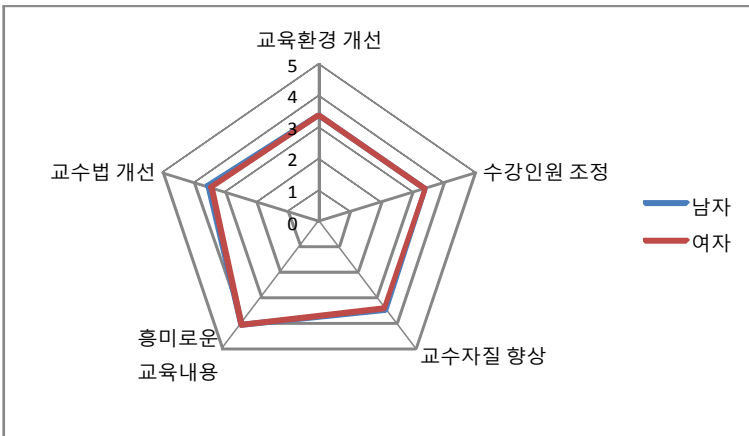
4.2. 개선의 필요성 분석

학생들이 교양국어를 수강함에 있어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2>를 얻었다. 여타의 내용에 비하여, 교육내용을 흥미롭게 운영할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내용 구성을 포함하여 교재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차이에 대해서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개선의 필요성 분석(%)

내용	매우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M(SD)
교육환경 개선	1.5	12.0	42.7	37.2	6.6	3.35(0.83)
수강인원 조정	1.1	11.3	42.7	38.0	6.9	3.38(0.82)
교수자질 향상	2.5	7.3	45.6	34.3	10.2	3.42(0.87)
흥미로운 교육내용	0.7	1.1	19.0	50.4	28.8	4.05(0.77)
교수법 개선	2.9	4.7	43.1	35.8	13.5	3.52(0.89)

<그림 4.1>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비교 그림



4.3.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분석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적 기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이에 각 대학의 교양국어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언어적 기술의 4요소를 중심으로 교양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J대학교의 경우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하여 어느 요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물어본 바 <표 4.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자기소개서, 실용글쓰기 등에 대해 무려 72.6%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지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토론이나 면접기술에 대해서도 76.6%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보편적 진리탐구에 해당하는 문학작품 읽기에 대한 필요성은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도 J대학교 학생들은 교양국어를 통하여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소양 보다는 도구과목으로서의 언어적 능력이나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능력 등 실용적 가치추구를 더욱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교양국어 시간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분석(%)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러하다	매우 그러하다	M(SD)
읽기(독해, 현대문학, 고전문학)	1.8	12.0	51.5	28.5	6.2	3.25(0.82)
쓰기(자기소개서, 작문, 실용글쓰기)	0.7	2.6	24.1	41.2	31.4	4.00(0.85)
말하기(토론, 프레젠테이션, 면접기술)	0.4	2.9	20.1	34.3	42.3	4.15(0.87)

4.4. 검정 및 회귀분석

교양국어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교양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교재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에 상관계수가 0.528(유의확률<0.001)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회귀분석 결과도 아래의 회귀직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001). 결국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재만족도가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재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3.13으로 비교적 높

지 않게 나타나, 향후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개선 시 교재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text{강의 만족도} = 1.664 + 0.528 \cdot \text{교재 만족도}$$

마지막으로 강의만족도에 대하여, 성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76으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0.05). 여학생들의 강의만족도 평균이 3.39로 남학생들의 평균인 3.21보다 약간 높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열별 평균차이에 대해서도, 예술체육계열(3.13), 인문사회계열(3.28), 자연보건계열(3.46) 순으로 나타났지만, 분산분석 결과 계열별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에 있어 교양국어는 전공과목을 제외한 대학에서 일반교양으로 분류되는 국어 관련 교과목을 의미한다. 대학 교양국어의 목적은 전공공부의 수월성 제고를 도와주고, 사회인으로서의 논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도구교과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국어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사회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2010년도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국어는 보편적 진리탐구와 실용적 가치추구 사이에서 혼돈의 상태에 있다. 각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경우 17%의 실용에 비하여 비실용이 83%로 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아직까지 교양국어 교육이 실용적 가치추구보다는 보편적 진리탐구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소재 대학들까지 모두 교양국어 교육에서 진리탐구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칼

바람 앞에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서울소재 대학들보다 생존의 절박함이 더하다. 이에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용적 가치를 더욱 추구해야 하는 쪽에 두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교육은 교육의 양주체인 교수자와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교수자 입장에서 실용교육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교육수요자의 생각과 배치된다면 교육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개편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재 사립 J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강의만족도 평균점수는 3.32로 나타났다. 이는 송근원(11)이 제시한 평가점수 부여방법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9점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J대학교 교양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과목당 강의시간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2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J대학교의 경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 중 하나만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의사소통능력은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 3학점 3시간을 1.5학점 2시간으로 분할하여,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이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않고 참여도를 높이는 어렵다. 따라서 교재부터 시작하여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요구된다. 특히 교재만족도는 전반적인 교육만족도에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흥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목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는 교양국어에 대한 교육목표의 새로운 정립을 의미한다. J대학교는 교육중심의 지방사립대학이다. 대학구조조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양국어를 통하여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소양 보다는 도구과목으로서의 언어적

11) 송근원, 「조사결과의 평가점수에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9집 제1호, 2003, 189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S점수를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능력이나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능력 등 실용적 가치추구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양국어의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교육내용을 재구성해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언어적 기술의 영역구분과 이에 따른 교재구성 그리고 교육내용 설계 등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대학의 사례연구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J대학교와 같은 지방사립대학의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개편에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두한, 「대학의 교양국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실태」, 『지역사회개발 연구』, 창간호, 1992.
-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와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6-2, 2010.
-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5-1, 2011, 229-261면.
- 송근원, 「조사결과와 평가점수에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사회과학연구』, 19-1, 2003.
- 엄성원, 「교양으로서 현대시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5-1, 2011.
- 염철, 「대학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논총』, 4, 2011.
- 이성희, 「대학 교양국어 교육내용의 유형분석」, 서울 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숙정, 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 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3, 2012.
- 최혜진, 강연임, 신지연, 「대학교양국어의 개선방안과 수업모형 개발」, 『한국 언어문학』, 80, 2012.

【국문초록】

교양교육이 보편적 진리탐구와 실용적 가치추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처한 여건과 현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학의 교양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직업교육화 되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는 목소리와, 교양교육이 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상아탑 쌓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대학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실용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방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정부분 교양교육이 실용교육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양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교양국어의 실용화 교육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사립J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강의만족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과목당 강의시간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교양국어를 통하여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소양 보다는 도구과목으로서의 언어적 능력이나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능력 등 실용적 가치추구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목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즉, 교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양국어의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교육내용을 재구성해야 하겠다.

주제어 : 교양국어, 요구분석, 의사소통능력, 실용교육

【Abstracts】

Consumer Needs Analysis for Cultural Korean Language Activation

Choi, Kyoung-Ho · Park, Jeong-Mi

Cultural education shows lots of differences about which truth exploration or practical values quest is more important according to a given condition and reality of a university. Some people voiced blame and concern that university cultural education lost an original purpose and became a vocational education, and that cultural education is busy itself about their achievements, not accepting social needs and changes . But, in university restructuring,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cultural education' practicality cannot turn away. In that case, it is hard to stand for many private provincial universities. Part of cultural education' can't help but become practical education. Also, cultural korean language is no exception. In reality the students, educational consumers, can't be ruled out that if the practical education of cultural korean language can't be avoided, in the course of the maximum of educational effect through activation.

In this study, needs analysis for cultural korean language activation was carried out for private provincial 'J' university. As a result, we can't say that students' satisfaction for 'J' university's cultural korean language is not low. We suggest several issues demanding that there are improvements in a few aspects, in the basis of analysis outcome. First, the control of class

hours per subject is needed. Second, The improvements of educational contents in order to attract students' interest needed, too. Third, educational goals for cultural korean language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rough the cultural korean language, It is shown that they want more practical values pursuits for linguistic ability and seeking jobs as an instrumental subject than basic fundamentals as a student. Accordingly, not from the professors' perspective, in a educational consumers stance, we have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cultural korean language and restructure educational contents with it.

Key words : Cultural korean language, Needs analysis, Communication ability, Practical educati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